

Studies in the Dating of Tamna - gun Foundation

Kim chong - Oup

- Summary -

Támna-gun was an island country which was located in the south sea of the Peninsula of Korea. The several names of the kingdom before the foundation of Támna can be seen in the documentary records, and the typical one of them was Tamna.

It recorded in Yongju Goji (old documentary record on Yongju) that the country name was changed into Támna when Ko Hu and his two brothers, the fifteenth generation of Ko ulla who was the founder of Tamna, attended Silla Dynasty.

There is many guesses on the historical record that the time of there attendance to Silla was in her prosperous age. But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location of Támna and the relationship of the official bargains with the Peninsula of Korea through the documentary records, I think that the attendance to Paekje took place about one hundred and eighty years earlier than that to Silla and Támna had the official relationship with Paekje in her prosperous ago.

The official relationship between Támna and Paekje took place first in these second year of King Munju of Paekje according to Samguk Sagi.

But in my opinion, the relationship would take place earlier than that year.

I am sure that it is reasonabl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ámna and Silla was confined to the private negotiations before the fall of Paekje and there was no official negotiations between Támna and Silla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morality between Támna and Paekje

Therefore it will be valid that the official relationship between Támna and Silla may have begun after the fall of Paekje.

Also it is probable that King Munmu of Silla gave Jeju the name of Támna in the second year of King Munmu when the uling class of Támna attended

Silla by way of Tāmjin after the territory of Paekje was entirely subordinated to Silla.

In conclusion, I am of opinion that the dating of Tāmna began from the second year of King Munmu, the thirtieth king of Silla.

耽羅國의 紀年에 對한 考察

金宗業

目次

- | | |
|---------------------|-------------|
| 1. 序論 | 6. 耽羅의 對外關係 |
| 2. 地理的環境 | ① 百濟와의 關係 |
| ① 位置 | ② 高句麗와의 關係 |
| ② 面積 | ③ 新羅와의 關係 |
| 3. 先史時代의 遺物과 遺跡 | ④ 日本과의 關係 |
| 4. 開闢說話 | ⑤ 唐과의 關係 |
| 5. 古代名稱 | 7. 結論 |
| ① 屯羅 ② 島夷 ③ 州胡 ④ 瀛州 | |
| ⑤ 涉羅 ⑥ 耽牟羅 ⑦ 耽羅 | |

1. 序論

南海의 孤島 濟州는 일찍부터 屯羅 州胡 瀛州 涉羅 耽牟羅 耽羅 등으로 呼稱되어 왔으며 其名稱中 屯羅와 耽羅가 其代表의 名稱이다. 屯羅로부터 耽羅로 改號된것은 記錄에 依하면 다만 新羅盛時라고 되어있다. 이 新羅盛時의 時期를 高氏世錄⁽¹⁾에 依하면 西紀前 五十七年으로 記錄되어 있다. 萬若 이 記錄이 認定한다면 西紀前五十七年은 朴赫居世의 徐羅伐 創建年代와 同一時期이다. 徐羅伐時代를 新羅의 盛時로 認定할 수도 없으며 耽羅가 이時期에 新羅에 入朝하기에는 時間적으로 볼때 不可能한 일이다.

本論稿는 屯羅가 耽羅로 改號된 歷史의 背景을 考察하고 耽羅國의 紀年에 對하여 論及하는데 있다.

2. 地理的環境

① 位置

濟州島는 韓半島 西南海上에 位置하여 있는 絶海의 大島로서 北으로 木浦와의 巨離는 約 八十八哩 北으로 位置한 楸子島와 木浦와의 巨離는 約六十八哩이고 南北쪽이 釜山및 日本의 對馬島와의 巨離는 約一七〇哩이며 南으로 日本列島의 九州長崎縣과 對하고 西쪽으로는 東中國海를 건너 南中國의 上海에 對하는 北太平洋에 孤立한 火山島이다.

1. 高氏中央宗門會刊, 高氏世錄(1973) P. 122.

經緯度上으로는

- 北緯 33度 10分~33度 35分
- 東經 123度 10分~127度에 걸쳐있다.
- 極東 東經 127度 城山面
- 極西 東經 126度 10分 翰京面
- 極南 北緯 33度 10分 西歸浦
- 極北 北緯 33度 35分 濟州市

② 面積

濟州島는 韓國 最大의 섬으로 其面積은 約 1.819 km² 에 達하여 本島는 濟州島를 中心으로 楸子島 및 周邊에 散在되어있는 數個의 附屬島嶼로 構成되어 있다.

市郡別 面積은

- 濟州市 252.35km²
- 北濟州都 704.09km²
- 南濟州郡 863.68km²

3. 先史時代의 遺物과 遺跡

濟州의 先史時代에 있어서 人類가 어느 때 부터 살기 始作하였는가에 對하여는 確言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濟州의 歷史的 社會的 變遷過程을 究明하는 出發點인 만큼 重大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人類學 先史學 考古學 民俗學 言語學 方面에 對한 研究가 四半世紀 동안 우리나라 學者들에 依하여 꾸준히 進行되어 왔으므로 그것을 參考資料로 삼고 濟州의 先史時代의 概觀을 살펴보면 오늘날까지 濟州에서 發見된 遺物과 遺蹟을 볼때 舊石器時代에는 濟州에 人類가 살지 않았으며 大体로 濟州에는 新石器時代부터 人類가 生存한 것이 아닌가 生覺된다 왜냐하면 濟州에서 오래된 出土遺物로는 北方系統인 櫛目文土器, 破片이 濟州市 吾羅里에서 發見됐고 打製石器 半磨製石器는 翰京面 高山里에서 發見하고 있으며 無文土器 破片은 濟州市 南쪽에서 發見했으며, 또 石斧破片 有孔單刀 磨製石刀 石製發火器等은 濟州市 三陽洞에서 發見했고 磨製石斧는 南濟州郡 西歸浦에서 出土되었다. 遺跡으로는 濟州市 管内인 龍潭洞 吾羅洞 外都洞에서 또 北郡 涯月面 等地에서 五 六個의 支石墓가 나타났다. 이런 支石墓는 南方式 形態인 것이다. 이런 遺物과 遺跡은 滿洲와 韓半島一圓에 널리 分布되어 있다.

濟州의 遺物과 遺跡을 分析컨데 濟州의 原住民들은 北方大陸으로 부터 移動居住한 一派

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特히 1973年에 北濟州郡 涯月面 於音里 俗稱「빌레못굴」에서 發見된 「황곰뼈」로 確認된 動物뼈와 約 一萬年前에 人間들이 잡아먹고 버린 것으로 보이는 사슴뼈 化石이 發見되었다.

이것은 大体로 中國 周口店 近處에서 發見한 것과 同一視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봐 濟州島는 어느때 인가는 大陸과 連續하였으리라고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빌레못굴」의 황곰뼈와 사슴뼈 化石이 考古學的으로 考證이 確定할때 濟州島의 原住民의 來歷과 人種問題는 밝혀질 것이며 至今까지의 區區한 억측이 一掃되리라고 믿는다.

4. 濟州의 開闢說話

東西古今을 通하여 어느나라 歷史를 莫論하고 開闢에 關하여는 其民族이 成立由來에 對하여 神話 傳說로 始作하지 않은 것이 거이없다.

特히 始祖에 關하여는 여러가지 神異한 說話가 따르기 마련이다. 濟州島의 開闢說話도 이런 形態를 踏承하고 있다. 韓國史에 있어서 開國始祖의 由來와 出生에 關한 說話를 分析하면 五가지 形態로 分類할 수 있다.

- ① 天神族說(桓雄說話, 北夫余解慕漱傳說)
- ② 地神族說(西述聖母說話, 濟州島三姓說話)
- ③ 天地神族說(檀君 및 大伽耶始祖傳說)
- ④ 外來說(箕子東來說 昔脫解傳說)
- ⑤ 卵生說(朱蒙 赫居世 昔脫解 關智 首露)

이 五가지 形態에 따르면 三姓始祖에 關한 說話는 第二形態인 地神族說에 屬하고 三姓人의 配匹者인 三神女에 關한 說話는 第四形態인 外來說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濟州島의 三姓人 出現過程은 瀛洲古誌⁽²⁾에 仔細히 記錄하고 있다. 卽 瀛洲太初 無人地也 忽有三神人 從地湧出 嶺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畜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擊山 望見紫泥 封木函自東海中浮來 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有一冠帶 子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 處子三人 皆年十五六客姿脫俗 氣韻窈窕 各修飾共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 稽首曰我東海 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 求不得所耦 常以遺嘆者歲餘 頃者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紫氣連空瑞色蔥蘢 中有絕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 以來宜用伉儷之禮以成大

2. 高氏中央門中會刊 高氏世錄(1973年) P. 754.

業 使者忽乘雲而去莫知所之三神人即以 潔牲告天 以年次分娶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去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且牧駒橐 日就富鹿 遂成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 至十五世孫 厚清季 三昆季造船渡海 朝于新羅 泊于耽津 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秦曰 異國人來朝之象也 已而耽羅王來朝新羅 王喜曰豫以不德 遽得貴客 不亦悅乎 以厚爲星主 清令出袴下愛如己子名曰王子東宮 季爲徒內 改耽羅 爲南化國 各賜衣冠寶蓋 親送南道車騎輜重大屬百里 自是之後 敬事新羅世受其職 以修蕃臣之禮 至厚十二世孫 聘服事百濟 聘卒後 曠世不朝 百濟東城王 庚申以耽羅不修朝貢 發怒與師率四千騎 親征南塞至武珍州 耽羅王 昭聞之遣使乞罪 乃止其兵 高麗太朝二十一年戊戌耽羅國主 高子堅遣太子 末老來朝 仍賜星主王子爵 自後世一朝見而 未有筮仕王國者 至繼始仕焉

高氏世錄 耽羅高氏族譜序文(3)에 依하면 瀛洲古誌보다 여러가지로 폭넓게 記錄되어 있다. 瀛洲在全羅道南海中 水路九百七十余里 本九韓之一 或稱毛羅 九韓時創號 或稱 耽羅新羅時所封 或稱耽毛羅百濟時所封也 亦有泰岳峙其中 張左右翼如一字橫鋪 名曰漢拏山 以其雲漢可拏因謂之名 此所謂瀛洲地中之神明山也 太初無人物 忽有三神人從地中湧出于 漢拏山之北麓廣曠地 品字之穴 名毛興穴 三人之出 正當九韓之時 長曰高乙那 三人之出乙那 三日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拏山 望見紫泥木函 自東海中浮來 欲留不去 三人相謂曰 異哉彼物也 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其封 隱然羅衣淑女三人 年皆十五六容姿脫俗 氣象窈窕 各修飾而坐 且持駒橐五穀種 出置金塘之岸 今朝天館下浦是也 三神人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語未畢 烏巾紅帶青衣使者 亦從函中出稽顙再拜曰 我是東海上碧浪國使者也 吾王生此三女 年俱壯長而求不得所耦 當欲遺與者歲餘 頓者吾王登者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葱籠 中有絕岳湧出三人 將欲開國 各無配匹 因此命臣 侍三女而送 願用伉儷之禮 以成大業也 已而忽然乘空而去 莫知所之 三人即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之 取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 第二都漢拏山之北一徒里今濟州也 良乙那所居曰 第二都漢拏山右翼之南山方里今大靜也 夫乙那所居曰 第三都漢拏山左翼之南山里今旌義也 自滋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狗橐日就富鹿 遂成人境 蓋九百年之後三神人 各自射石以試勇力 高氏爲上 良氏爲中 吏氏爲下 故民心並歸于高氏 以高爲君 以良爲臣 以吏爲民而 國號毛牟以其牟穀茂盛之故也 始祖高乙那十五世孫 號厚孕季兄弟三人 造船渡海 泊于耽津即今康津蓋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秦曰 異邦人來朝之像也 我而厚等至 王大喜曰 豫以不德

違得貴客 不亦悅乎 以厚爲星主 因其動星像也 以孕令出袴下 愛如己子改名清 以季爲徒內 失其名職也 國號耽羅以其初泊耽津而朝新羅之名 南北國也 各賜衣冠寶蓋 護送南道 車騎輻重大屬百里 當此之時 子孫繁盛 敬事新羅 (以下省略)

耽羅志濟州⁽⁴⁾ 建置沿革條에는 簡略하게 記錄되어 있다.

本九韓之一 或稱毛羅 或稱耽羅 或稱耽牟羅 在全羅道南海中 幅員四百余里 初有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兄弟三人 分處其地 名其所居曰徒 新羅時高厚高清及季 航海來朝 王喜 號厚曰星主 清曰王子 季曰徒內 賜國號曰耽羅 其後服事百濟 文周王二年丙辰 拜耽羅國 使者爲恩率東城王二十年庚申 以耽羅不修職貢 親征至武珍州 其主聞之 遣使乞罪乃止 及百濟亡 新羅文武王元年壬戌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來降 (以下省略)

耽羅國에 對한 神話를 簡略하게 要約하면 太初에 人物이 없더니 三神人이 漢擊山 北麓廣壤地 毛興穴에서 湧出하니 長은 高乙那요 次는 良乙那요 세 째는 夫乙那이다. 三神이 荒僻에 狩獵하며 皮衣肉色으로 生活하더니 하루는 東海邊에 紫泥色으로 封한 木函이 浮來함으로 가서 開函하니 函內에는 石函과 紅帶를 두르고 紫衣를 걸친 使者가 隨來하여 있었다. 이어서 石函을 여니 青衣處女三人과 駒橈과 五穀種子가 있었으니 使者가 이르기를 나는 碧浪國 使者로 吾王에게 三女가 있어 이르기를 西海中에 神子三人이 내려와 將次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 配匹이 없을것이다. 이에 臣에게 命하여 三女를 모시고 왔으니 配匹로 삼고 大業을 이 르소서 하고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三神人은 年畝차례로 三女를 취하고 물이 좋고 土地가 肥沃할 곳에서 활을 쏘아 땅을 定하니 高乙那사는 第一都라 하고 良乙那사는 第二都라 하고 夫乙那사는 第三都라 하였다. 비로서 五穀을 파종하고 또 駒橈을 養殖하여 날로 繁殖하였다. 其後九〇〇年후 人心이 高氏로 歸하여 高氏를 王으로 삼고 國號를 屯羅라 呼稱하였다.

高乙那十五代孫 高厚 高淸과 季등 三兄弟가 造船하여 바다를 건너 耽津을 거쳐 新羅에 入朝하니 때는 新羅의 盛時였다. 때에 客星이 南方에 나타나니 太史가 奏하기를 異國人이 來朝할 象이라 하였다. 이윽고 果然 高厚등이 이르렀는데 王이 嘉尚히 여겨 長子厚는 星象을 움직였다하여 星主라 稱하고 二子淸은 王이 淸을 바지아래로 出入하게하여 子息과 같이 사랑한 까닭에 王子라 稱하고 季는 徒內라 하고 國號는 耽羅라 하였다. 各者에게 寶蓋와 衣帶를 賜하고 이들을 보내었다. 이로부터 新羅를 섬기고 高氏를 星主로 삼고 藩臣之禮를 행하였다. 高厚의 十二世孫 聯에 이르러 百濟에 服事하다가 聯이 돌아간후 朝貢하지 않으므로 百濟東城王은 同王二十年에 스스로 四千騎를 거느리고 耽羅征伐에 나서 武珍州에 到着하니

4. 李元鎮 耽羅志(1653) 建置沿革條 P. 1. 2.

耽羅王은 이事實을 알고 使者를 派遣하여 謝罪하고 臣服할 것을 約定하니 東城王은 卽軍하였다. 高麗가 後三國을 統一한후 耽羅國主 高自堅이 太子末老를 派遣入朝시키니 高麗太朝는 耽羅國主에게 星主王子爵을 授與하였다.

瀛洲古誌에 나타난 耽羅國의 說話는 耽羅의 社會의 形成 發展過程을 說明하여주는 唯一한 文獻이라 할수 있다.

卽 氏族社會에서 部族社會로 部族社會에서 種族社會로 發展하는 過程을 說明한 것으로 解釋해야 될 것이다. 全島를 三地域으로 나누어 各各其管 轄地域에 居住하면서 悠久한 歲月이 흘러가는 동안 各氏族의 子孫들이 繁昌하였고 產業이 發展됨에 따라 四方에는 氏族部落이 生活方式는 農耕과 牧畜 그리고 漁業을 生業으로 하여 共同生産 共同分配의 原則下에 共同生活을 營爲하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 高요한 樂園境의 孤島에도 時代的인 變遷과 社會의 發展에 따라 外部로부터 物理的인 힘 卽 軍事的 政治的힘이 加하여지기 始作되어 小數의 氏族만으로는 外部로부터의 物理的인 힘 特別히 軍事的인 힘을 防禦할수 없으므로 各部落이 氏族들은 相互間에 攻守同盟을 必要로 하였고 運營할 組織體도 必要하였을 것이다.

原始的인 各氏族의 政治的組織은 大氏族政治로 發展되어 氏族長이 이를 統率하게 되었다. 三姓이 各氏族集團은 보다큰 敵에 對抗하기 爲하여 三姓이 聯合하여 氏族이 大集團인 部族社會를 形成시키게 이은것으로 生覺된다.

5. 古代名稱

耽羅紀年에⁽⁵⁾ 依하면 濟州島의 古代名稱이 여러가지로 나타나 있다. 卽 屯羅 島夷 瀛洲 州胡 涉羅 耽牟羅 耽羅등으로 其名稱이 연유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屯羅

新羅 眞興王때 西紀五七〇年頃 僧安弘法師所記에 依하면 耽羅는 國名이니 本來九韓이 하나이다. 一, 日本 二, 中華 三, 吳越 四, 屯羅 五, 鷹遊 六, 鞞鞞 七, 丹國 八, 女眞 九, 歲貊 이라는데서 屯羅의 名稱이 나온 것이며 安弘法師의 所記의 記錄은 西紀六世紀 後半에 나온 것으로보아 亦是 耽羅의 名稱은 其後의 國名으로 考察하는 것이 妥當하다.

② 島夷

司馬遷의 史記에 依하면 禹王이 九州를 定함에 各己其職務로 貢物을 바쳤는데 荒服에 까지 (王畿로부터 二千里乃至二千五百里 떨어진곳 卽 遠地) 이르렀다. 北으로 山戎 肅慎과 東으로 長夷 島夷등 帝舜의 功을 높이 받으셨다. 史記正義編에는 島夷를 島夷라 한다. 尚書

5. 金錫翼 耽羅紀年(1918) P. 1. 2. 3.

(書經)에 양주의 島夷는 卉服을 하였다. 卽 史記의 記錄에 依하여 濟州의 古名의 島夷로 中國社會에서 呼稱된 것이며 濟州의 古名 州胡는 其後에 생긴 名稱으로 보아야 하겠다.

③ 瀛洲

亦是 司馬遷이 史記에 依하여 瀛洲는 渤海中에 있다고 하였으며 東國世紀에는 金剛山을 蓬萊라하고 智異山을 方丈이라 하고 漢拏山을 瀛州라 하였는데 濟州의 古名의 瀛洲라 呼稱하게 된 것은 東國世紀의 記錄에 依하여 基因된 것이다.

④ 州胡

濟州에 關한 記錄으로서 中國史書에 仔細히 나타난 것은 三國志魏志東夷傳이다. 이 文獻은 陳壽란 사람이 撰이요 이분은 昔나라 惠帝때 死亡(西紀二九七年) 하고 있어서 濟州에 關한 記錄으로서는 가장 오랜 文獻이다. 이 文獻에⁶⁾ 依하면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 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始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乘船往來 市買中韓」卽 馬韓이 西海가운데 큰섬에는 州胡란 것이 있는데 그들은 體小하고 言語는 馬韓과 같이 않고 鮮卑族과 같이 모두 머리를 깎고 있으나 衣服은 가죽으로 만들었으나 上衣만 입고 下衣는 없으므로 裸體나 다름이 없으며 또 소와 돼지를 기르기를 좋아하고 배를 타서 中韓에 往來하여 貿易을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州胡는 耽羅國의 옛名稱으로서 至今 이 濟州島를 가르킨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 이 記錄中 몇가지 指摘하고 싶은 것은 人種이 體小한 것은 鮮卑族과 같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과 言語가 馬韓과 不同하다는 點이다. 人種이 體小한 것은 南方系統이 漁民들의 風兩을 만나 濟州에 漂着하고 一定한 地域에 定住시켜 原住民과 區分하여 隸民화된 것이 아닌가 본다. 辰韓時에⁷⁾ 辰韓右渠師 廉斯鏞에 關한 魏略이 記錄을 보면 漢人千五百名의 木材를 伐採하다가 韓人에게 잡혀 머리를 깎고 奴隸가 된지 三年이다라는 記錄이 있다. 이때가 王莽 地皇年間 西紀二十年 乃至二十三年에 記錄이고 보면 三韓에서는 罪人이나 外來人 歸化人 捕虜같은 사람을 모두 奴婢로 삼고 머리를 깎았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州胡에서 도 韓과 交易하면서 韓이 風俗을 본받아 外來로 부터 온 外來人 罪人들을 奴婢로 삼아 一定한 地域에 居住케 하였고 이내들은 母國語를 使用하였기 때문에 韓과 不同한 것으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⑤ 涉羅

魏收撰 後魏書에 依하면 正始(北魏宣武帝稱之 西紀五百年頃) 年中에 世祖가 高句麗 使者

6. 震檀學會, 韓國史 古代篇 P. 459.

7. 震檀學會, 韓國史 古代篇 P. 316.

芮悉弗를 引見할때 芮悉弗 아뢰기를 黃金은 扶余에서 나고 珂玉은 涉羅에서 產出하는바 至今扶余는 勿吉에서 쫓기고 涉羅는 百濟에게 併呑되었다라고 또 三國史記⁸⁾ 高句麗本紀에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 其使芮悉弗 於東堂 悉弗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地產土毛無愆王貢 但黃金出自扶余 珂則涉羅所產 扶余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云云」이 記錄에서 濟州를 涉羅로 呼稱하게 된 것이다.

6. 耽牟羅

隋書에 煬帝大業四年 西紀六百五年에 文林郎 襄世清을 倭國使臣으로 派遣하는데 百濟를 지나 竹島에 이르니 南으로 耽牟羅國이 멀리 大海中에 있는 것이 보였다고 記錄이 있고, 또 東史에 隋가 陳을 이미 平定함에 戰艦一隻이 漂流하여 耽牟羅國에 漂到하였다. 漂到한 一行들이 百濟를 經由하여 돌아갈때 耽牟羅國王이 物資를 厚히 주어 보냈다는 記錄에 依하여 耽牟羅라 呼稱하게 되었다.

⑦ 耽羅

歐陽修著 新唐書에 依하면 唐高宗龍朔初 (西紀六百六十一年) 耽羅國이 있어 其王 儒李都羅가 使臣을 보내어 方物을 바치고 來朝하였다. 이 耽羅國은 新羅武州南島上에 있어 風俗이 朴陋하고 犬皮를 입고 여름에 草屋에 살고 겨울에는 窟室에 살며 其土地에는 五穀이 生産되나 牛耕을 몰라 쇠고무래로 使用하며 처음에는 百濟에 附庸되었다가 後에 新羅에 隸屬되었다. 麟德二年(西紀六百六十六年)에 酋長이 來朝하여 皇帝를 따라 泰山의 天祭에 參觀했다 以上 濟州의 古名 일곱가지에 對하여 其呼稱하게된 緣由를 分析할때 耽羅國이 名稱은 西紀七世紀 中半頃에 中國社會에서 呼稱하게 된것을 알수가 있다. 西紀七世紀 中半頃은 新羅가 三國統一을 爲하여 強力하게 國力을 培養하는 한便 中國이 唐과의 交隣政策을 確立 軍事的 聯合體制을 수립하여 百濟를 滅亡시킬 때이므로 濟州의 部族社會에서도 百濟에 臣服하다가 百濟가 新羅에게 滅亡當하였으므로 新羅에 朝貢하게 이룬것이며 百濟의 耽津을 經由하여 新羅에 入朝하였기 때문에 新羅 王은 國名을 耽羅로 改號하였으며 이후 부터 濟州를 耽羅로 呼稱하게 된것으로 思料된다.

6. 耽羅의 對外關係

① 耽羅와 百濟와의 關係

三國時代에 있어서 耽羅國과 地理적으로 가장 近接하고 公的 私적으로 交涉이 먼저 이루어진 나라는 百濟이다.

8. 三國史記 卷十九 高句麗本紀 文咨王 13年條.

三國史記百濟本紀⁽⁹⁾文周王二年(西紀四七六年)條에 依하면 「耽羅國 獻方物 王喜拜使者 爲 恩率」即 文周王二年에 처음으로 耽羅國使者가 方物을 百濟에 獻納함에 王은 기뻐하여 使者 에게 세번에 높은 百濟의 官等인 恩率이란 官職名을 授與하였다.

또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二十年八月條¹⁰⁾에 依하면 「王以耽羅 不修貢賦 親征至武 珍州 其主聞之 遣使乞罪乃至」 또 耽羅志에¹¹⁾ 依하면 「東城王二十年 庚申以耽羅 不修職貢 親征至武珍州 其主聞之 遣使乞罪乃至」라 하였다.

即 三國史記百濟本紀에 依하면 東城王二十年八月에 王이 耽羅가 貢賦를 納지 아니함을 理由로하여 耽羅를 征伐하려고 軍事를 거느리고 至今 光州에 이르렀던바 이消息을 들은 耽羅 國主는 使臣을 派遣하여 謝罪함으로 回軍하였다 한다.

이 記錄을 보건데 耽羅와 百濟間에 交涉은 百濟文周王年에 처음으로 이루어 졌으며 交隣 之國으로써 相互間에 公的私的의 交涉이 行하여 졌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耽羅의 服屬問題는 東城王以前의 事實과 같이 되어 있는데 東城王以前은 服屬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交隣之國으로써 公的의 交涉이 이루어진 것으로 生覺함이 妥當하며 耽羅의 對外關係도 西紀四 百七十年을 契機로 하여 始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日本書記 繼體天皇二年의 記錄에 依하면 百濟武寧王八年에 耽羅人이 처음으로 百濟와 通 交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學說이 옳은지 判斷하기 어려우나 百濟가 앞서 蓋鹵 王二十年에 高句麗의 大의인 南侵攻勢를 받아 首都漢城이 陷落되고 王이 殺害를 당하고 王 子文周가 即位하여 都邑을 公州로 南遷한 일이 있었다. 百濟는 高句麗에 對한 對抗策으로 東 城王十五年에 新羅와 婚姻同盟을 맺고 高句麗에 對한 攻守를 같이 하였던 터이므로 耽羅國도 其勢力圈內에 집어넣어 高句麗에 對한 견제책을 取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런 對外的인 情 勢로 미루어보아 耽羅의 百濟에의 服屬問題는 三國史記에 記錄된 事實대로 東城王 即位前後 로 보아야 하겠고 耽羅國主가 百濟로부터 佐平이란 最高官級인 官爵을 授與하기 始作한 것은 二十五代 武寧王初로 보는것이 妥當하다. 後魏書高句麗傳及 三國史記高句麗本紀¹²⁾ 文咨王 十三年條에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 其使芮悉弗於東堂 悉弗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 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扶余 珂則涉羅所產 扶余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云云 即文咨王十三年四月에 使臣을 魏로 派遣하여 朝貢하니 世宗은 其使臣 芮悉弗을 東堂 에서 引見하였다. 芮悉弗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魏와 修好關係를 맺고 純誠을 累積하여 오

9.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文周王二年條

10.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二十年條

11. 李元鎮 耽羅志 (1653) 建置沿革條 P. 2

12. 三國史記 卷第十九 高句麗本紀 第七 文咨王十三年條

며, 地上土毛하니 朝貢에 허물이 없었는데 다만 黃金은 扶余에서 產出되고 珂玉은 涉羅에서 나는데 扶余는 이미 勿吉에게 쫓긴바 되고 涉羅는 百濟에 併合되었으므로 이 두가지 物品을 가져오지 못하였읍니다고 말하였다. 文咨王十三年은 百濟武寧王 四年에 該當됨으로 耽羅의 百濟所屬은 더욱 其以前의 事實로 보아야 하겠다.

② 耽羅의 高句麗와의 關係

後魏善 高句麗傳 及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文咨王十三年條의 記錄에 依하여 살펴볼때 한가지 示唆하여 주는것은 高句麗와 耽羅와의 關係인 것이다. 耽羅와 高句麗와의 地理的 巨離는 멀다하겠지만 當時 高句麗의 首都는 平壤에 있었으므로 前日에는 西海를 通하여 耽羅와 公的 私的인 貿易이 可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耽羅가 百濟에 服屬된 후로는 百濟의 政治的 干涉이 있어 高句麗와의 交易이 杜絶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其服屬時期는 東城王 即位前後 西紀四百八十年代로 高句麗와 耽羅와의 關係는 이時期에 杜絶된 것으로 思料된다.

③ 耽羅와 新羅와의 關係

耽羅와 新羅의 關係는 일찍부터 濟州島에 關한 文獻에 나타나 있다. 即耽羅의 開國說話에서 高乙那의 十五代孫인 高厚一行이 新羅入朝의 記錄이 있고 또 李元鎮 耽羅志¹³에 「新羅時 高厚 高淸及季 航海來朝 王喜號厚曰星主 淸曰王子季曰徒內 賜國號曰耽羅 其後服事百濟」라하였고 또 金錫翼 耽羅紀年¹⁴에는 「高乙那十五代孫 高厚 高淸及季 兄弟三人 造舟渡海 泊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中略) 國號曰耽羅 以來時初泊耽津朝新羅蓋也 (以下省略)」라고하였고 또 淡水契 耽羅誌¹⁵에는 新羅時에 十五代孫 高厚 高淸 季 兄弟三人이 造舟渡海하여 耽津에 泊하니 때는 新羅全盛時代라 太史가 奏하되 客星이 南方에 現하니 異國人之 來朝할 징조라 하더니 未幾에 果然 高厚등이 至한 지라 王이 喜하야 厚를 星主 淸을 王子 季를 徒內라하고 國號를 耽羅라하야 各其 寶蓋와 衣帶를 賜하니 이것이 內陸과의 交通의 始初요 일로부터 新羅에 服事하야 高를 星主 良을 王子 夫를 徒內라하다」

濟州의 代表的 諸文獻에서는 耽羅가 最初로 交流했던 韓半島의 部族國家로는 新羅를 指摘하고 있으며 耽羅라는 國號도 新羅朝廷에 耽津을 經由하여 入朝하였다는 緣由에서 붙여진 名稱이라고 되어있다.

耽羅와 新羅와의 關係는 三國鼎立以前에는 私的인 交易은 있었을지 몰라도 公的인 交涉은 百濟가 滅亡한 후부터 始作한 것으로 보는것이 妥當하다.

13. 李元鎮 耽羅志(1653) 建墨泊率條 P. 1

14. 金錫翼 耽羅紀年(1918) 紀外善條 P. 8~9

15. 淡水契 耽羅誌(1954) P. 260

三國史記 文武王二年條¹⁶에 「耽羅國主 佐平徒冬音律 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 爲官號 至是降爲國」 卽 耽羅는 武德以來로 百濟에 臣屬하고 있었으므로 佐平이 官號를 주었는데 이에 이르러 新羅에 降伏하여 屬國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武德 이란 年號는 唐高祖 卽位年의 年號이다. 耽羅는 其以前에 百濟에 臣服한 記錄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武德以來 云云이 記錄은 史官이 錯覺에서 나온것이라 하겠다.

⑥ 耽羅와 日本과의 關係

耽羅人이 日本과의 私的의 交易은 三國時代 以前부터 行하였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文獻上에 나타난 公的의 交涉은 百濟가 羅唐聯合軍에게 降伏하던 文武王元年부터 始作된다. 卽 日本書紀 齊明紀七年 夏五月條에 耽羅가 처음으로 王子阿波岐를 派遣하여 禮物를 傳하였다는 記錄이 있으며, 또 日本書紀에 依하면 天智天皇四年에 耽羅가 日本에 使臣을 派遣했다고 記錄되어 있고 同王六年에는 耽羅가 佐平椹磨에게 錦十四匹 纈十九匹 緋二十四匹 紺布 二十四端 桃染布五十八端 斧 二十六 鈿 六十四자루 刀子六十二枚를 주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佐平은 百濟滅亡前에 百濟에서 받은 官爵을 그대로 稱用한것 같고 耽羅와 日本과의 公的의 貿易은 新羅가 三國統一후 耽羅가 新羅에게 服屬한 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耽羅와 唐과의 關係

唐書東夷傳 僂羅條에¹⁷ 新唐書 高宗龍朔初有僂羅者 其王儒理都羅 遣使來朝貢方物 國居新羅武州南島上俗樸陋衣 犬豚皮 夏居草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以鐵齒 把土初附 百濟後附新羅 麟德二年乙丑 酋長來朝從帝至太山」

卽 唐高宗 龍朔初에 僂羅國主儒理都羅가 使者를 보내어 入朝하였다. 하였고 또 高宗麟德年에는 僂羅의 酋長이 來朝하여 唐이 高宗皇帝를 隨行하여 泰山에 갔다고 記錄되어 있고 또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五年條에¹⁸ 「於是仁軌領我使者及 百濟 耽羅 倭人! 四國使浮海西還」이라하였다.

唐의 高宗龍朔初는 西紀六六一年이고 新羅 文武王一年이요 麟德年은 西紀六六五年이다. 이때는 百濟의 復興運動이 失敗되었고 百濟故地는 平和가 回復되었으므로 唐將劉仁軌는 新羅 百濟 耽羅 倭國의 使者를 帶同하고 海上으로 唐나라에 간것이고 耽羅王은 唐帝가 行하는 天祭에도 參觀하였던 것이다. 唐나라의 巨儒 韓愈書에도 耽浮羅等 外國商船이 廣州地方에 暴走한다는 記錄이 있다. 耽羅人들은 統一新羅以後 新羅의 強力한 國力下에 造船航海術이 能하여 中國沿岸까지 進出하였음을 指摘한 것이라 하겠다.

16. 三國史記 卷第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二年條.
17. 金錫翼 耽羅紀年(1918) 外書條 P. 10~11.
18. 三國史記 卷第六 新羅本紀 文武王五年條

耽羅의 對外關係를 三國과 倭唐等을 文献을 通하여 살폈는데 亦是 最初에는 一方的으로 近接한 百濟에 依存交隣하였으며 東城 I: 即位前後를 契期로하여 服屬이 이루어진 것이며 韓半島의 文物도 百濟를 通하여 받아들여 耽羅의 部族社會의 体制가 整備되기 始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生覺된다. 따라서 百濟가 滅亡한후 耽羅로서는 새로히 君臨한 新羅 I 朝에 처음으로 耽津을 經由하여 入朝하게 되었으며 新羅文武王은 耽羅의 入朝를 반갑게 맞아 들었으며 새로히 耽羅라는 國名도 拜授받은 것으로 分析하여야 하겠다. 이후부터 耽羅는 新羅에게 服屬하게 되었으며 新羅의 強力한 政治의 勢力下에 倭及 唐과의 公的 交易이 活發하게 展開된 것으로 思料된다.

7. 結 論

耽羅國은 韓半島南海上에 位置한 島國으로서 耽羅以前의 國名으로는 여러가지 名稱이 文獻上에 나타나 있으나 其 代表의인 名稱으로는 毛羅라 하겠다 毛羅始祖 高乙那 十五代孫 高厚三兄弟의 新羅入朝때 國名을 耽羅로 改號하게 되었다고 羸洲古誌에 記錄되어 있다.

新羅入朝期가 新羅盛時로 되어있어 여러가지 推測이 있으나 耽羅의 立地의 條件과 韓半島와의 公的 交涉關係를 文献을 通하여 考察할때 新羅보다 百濟가 約 百八十余年 앞섰고 百濟의 發展期에 耽羅도 百濟와 公的關係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記錄上으로는 百濟 文周王二年에 처음으로 公的關係가 나타난 것으로 三國史記에는 되어있으나 其以前에 벌써 百濟와의 關係는 成立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耽羅와 新羅와의 關係는 百濟의 滅亡前에는 私的 交涉는 있었을지 모르나 公的 交涉는 政治道義上 없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耽羅와 新羅와의 公的關係는 亦是 百濟滅亡後부터 始作된 것으로 보는것이 妥當하며 耽羅의 名稱도 百濟의 故地가 新羅에게 完全服屬된 文武王二年 처음으로 毛羅의 支配階級の 耽津을 經由하여 新羅에 入朝함으로써 新羅文武王이 濟州의 名稱을 改號시킨 것으로써 耽羅國의 紀年은 文武王二年을 起點으로 보는것이 妥當하다.

參 考 文 獻

1. 高氏中央宗門會刊, 高氏世錄
2. 李元鎮 耽羅志
3. 金錫翼 耽羅紀年
4. 震檀學會, 韓國史 古代篇
5. 金富軾 三國史記
6. 淡水契 耽羅誌